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착공을”

광주시의회 입장 확정...市 수용여부 관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시가 올 연말까지 건설방식을 결정하기로 한데다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 최종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시의회와 견해 차이가 커 올해를 넘길 공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광주시의회는 16일 “광주시는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대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운장현 시장은 지난해 12월 시민의 뜻에 따라 2호선을 원안대로 착공하기로 결심했고 약속했다”면서 “2호선 논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고 12월말까지 현명한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년이 지났는데도 광주시는 2호선 건설 총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를 들어 또다른 5가지 안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면서 “광주시민들은 2호선 건설에 찬성하며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윤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의회 모든 의원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에서 결의

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촉구 성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 중역 예상된 사업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한 절감 등으로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해왔다. 이로써 광주시가 시의회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시의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최종 건설방식 결정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주관 토론회를 지켜본 뒤 시민 공청회를 열고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1일로 예정된 시민 공청회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광주시의 고민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시장 안팎에서는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이 해를 넘길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교통연수원 개원 16일 강진군 성전면에서 전남교통연수원 개원식이 열렸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 박성수·이병완 추천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6일 새 원장 후보자로 박성수 전남대 교수와 이병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추천했다. 연구원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 추천 후보자 2명 가운데 최종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어 오는 28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합동 인사청문회를 열

청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전남대 기획실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이사, 한국산학협력동원위원장, 행정자치부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전 실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문화특보, 비서실장, 서구의회 의원, 국민참여당 정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당해 규제 완화·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다. 사물인터넷(IoT), 무인기(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학 등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방패가 되는

입지·업종 규제는 민감한 것이더라도 규제프리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데다가 차별성마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 산업정책을 확 뜯어고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한 각종

특구, 첨단단지, 투자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사·중복분야가 많고, 기업의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프리존’이 정치권에 휘둘러 지역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먹거리산업’ 방해물 제거... 기업 투자 기대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주·전남 등 14개 지역 시도의 전략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의해 제안한 것을 중앙정부가 심사해 결정했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입지 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역이 신기술·융복합 산업을 추진하는데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정부가 30일 내에 판단해주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도 도입된다. 각 지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

재정·세제·금융 지원 집중

특구·첨단단지 등 중복 많아

선거 앞두고 무분별 완화 우려

지역 방안을 마련하고서 내년 6월에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효율·정경유착 우려도 = 그동안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구·기업도시·혁신도시 등으로 쪼개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러 지역이 너도나도 같은 사업을 키우겠다고 나서 차별성도 없었다. 이리다 보니 대구·경북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첨단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가 한꺼번에 들어서 있는 상태다. 지역별로 특화된 규제 개혁은 전면적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줄이면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키울 방안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



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밝혔고 나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각 지역에 2개씩(세종은 1개) 나눠주기 식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유사·중복사업 선정을 최대한 지양했다고는 하지만 수소연

료차,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산업과 IoT 관련 산업, 에너지산업에 지역들의 ‘선호도’가 집중됐다. 지역들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전략산업을 결정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이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10월 7일이다. 이후 정부는 11월 2일에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11월 30일까지 각 지역에서 전략산업을 신청받았다. 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프리존’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백용기 상명대 교수는 “규제프리존의 의도는 좋지만, 각종 비효율과 정경 유착 등의 부패 발생이 걱정된다”며 “정부가 전략산업을 조정하고 조세·재정을 활용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등의 정책을 펴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외버스 10번 타면 1번 공짜 ‘쿠폰제’ 도입

교통

특정 시외버스 노선을 10번 이용하면 1번 공짜로 탈 수 있는 ‘버스 쿠폰제’가 내년 중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시외버스 정기권 ‘10+1’ 할인혜택 등 교통비와 주거비를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정기권 ‘10+1’ 할인제 외에 사전예약과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와 중고차시장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주거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 추진 계획도 포함됐다. 뉴스테이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3년간 6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로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만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은 정부 목표인 6만가구 가운데 올해 공급될 1만4000가구(리츠 영업인가 기준)를 뺀 나머지 4만6000여가구를 어디에 지을지

내년 안에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의 미다.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공급할 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용하 각각 1만가구의 입지가 공개된다. 정부는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을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영용지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택배·철탑 점검에도 드론 활용 산업부 시범사업...고공에 국가 비행성능시험장

도시·산간 지역 택배나 철탑 등의 점검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을 담은 ‘무인기산업 수요기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산업부는 감시·배송·구조 분야 드론 시

범사업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장 수요를 끌어낼 계획이다. 내년 3월 관련 공공분야 사업을 공고하고 두세 건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력·가스 등 에너지설비 점검이나 드론을 기반으로 한 우체국 택배 배송 등이 시범사업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은 전남 고공에 국가 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갖춘 내용도 담았다. 드론 투자유치 포럼을 비롯해 국제 세미나와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안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변책임)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p>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코전 27~36세 	<p>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p>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구 7면 70m 44년형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킴리코엔(Ⅱ)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